

# 科學技術發展과 言論의 科學報道



한양대학교수 신문학박사 오 진 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科學技術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하는 고도로 분업화되고 산업화되어가는 사회이다. 산업화가 곧 잘 살 수 있는 길이며 기술화가 곧 산업화의 지름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이며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기계의 정밀함에 더 매료되어가는 듯한 사회에 살고 있다. 現代人은 科學技術의 혜택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고 있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절대다수가 신문을 읽고 있는 情報科學時代에 살고 있으면서도 科學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적고 아직도 技術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다. 현대인의 意識구조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사회운영의 기틀 역할을 하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질과 내용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과학시대의 첨단을 걸어야 하며 인간생활에 과학화를 꾀하고 科學技術을 발전보급하는데 기여해야 할 매스커뮤니케이션 媒體들이 과학화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뒤떨어진 組織이며 企業인 것은 놀라운 일이며 더우기 앞서가는 科學技術발전예 비해 항상 뒤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自然환경을 최대한도로 효율성있게 개발하고 활용하여 모든 사람들의 복지향상을 꾀하기 위하여서는 科學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고 모든 社會 구성원들의 생활을 科學化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科學化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時間과 精力의 손실을 크게 막을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력의 손실을 막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과학의 생활화는 오직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자발적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그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言論이라는데 큰 뜻이 있다.

## ◇ 科學技術과 言論

科學은, 쉽게 말하면 어떠한 가설위에 서서 뚜렷한 인식목적과 합리적방법에 의하여 세워지는 체계적 지식이며 技術은, 이러한 체계적 지식으로 이론화된 것을 실제로 응용하는 재주라 할 수 있다. 科學은 自然과 人間現象을 관찰하면서 이들의 상호관계속에서 발견된 보편타당성 있는 사실들을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모아 엮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이를 인간생활을 위해 활용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학기술이 된다. 그러기에 과학기술은 인간생활과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인간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으뜸된 방법이 되는 셈이다.

인간의 사회생활속에서 빛어지는 정보의 대량수집확산을 매스 또는 사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며 이러한 일을 조직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매스커뮤니케이션 매체인 言論기관이라고 한다. 이들은 新聞, 放送, 出版, 通信, 雜紙를 주로 일컬으며 이들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인간생활을 도모하며 살기좋은 사회를 건설하도록 이바지하는데 있다. 그럼으로써 그 사회속에서 在立의의를 찾고 이윤을 추구하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맥락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科學技術과 言論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작용과 기능의 차원이 다를 따름이다. 과학은 탐구하면서 새것을 찾아내고 창조하고 기술이 이를 갈고 닦아 쓸모 있게 만들면 언론은 이를 많은 사람들

의 생활화를 위하여 보급하고 권장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속에서 科學技術과 言論은 상호보완의 입장에서 인간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볼 수 있다.

◇ 韓國言論의 科學性

산업사회속에서 과학기술 보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言論은 과학기사가 보도에 극히 소홀한것 같다. 황당무계한 환상적 드라마를 科學물이라고 방송하는 텔레비전을 비롯하여 말로는 과학이라고 하나 비과학적인 보도들을 거침없이 해내는 것이 한국의 방송이며 지면관계이긴 하지만 新聞에서도 과학을 천대받고 있으며 科學部가 없는 신문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도 言論이 科學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그리고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새로운 技術도입과 文化移入에는 새로운 情報가 必要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 위해선 창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기술도입에는 민감하나 창조적노력은 거의하지 않는 것이 한국 言論의 전통이며 이것은 100년 가까이되는 한국 언론사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오늘날 한국 言論의 모든 운전기와 방송기자들은 우리 기술의 소산이 아니라 외국제를 직접들여와 쓰고 있으며 이들 기자들의 개발을 위해 대량투자하는 新聞이나 放送이 아직도 없다는 것은 한국 言論의 비과학성을 들어내 보이는 한 예이기도 하다. 이러한 보수성 속에서 창조에 의한 개혁과 과학적방법에 의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꽤 어려운 것이다. 新聞記事나 編輯은 日本新聞을 모방하고 放送프로는 더하며 심한 경우는 그대로 옮겨놓고 있으며 廣告의 경우는 눈살이 지푸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앞서서 보도 논평해야 될 言論이 가장 뒤에서 따라가는듯한 것은 소박한 경비절약이기보다는 창조성결여에 있고 科學에 대한 理解부족에 있다고 해도 큰 잘못은 없다고 믿는다.

科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정보수집 및 확

산과정에서 科學을 소홀히 다루며 특히 放送의 경우는 科學技術발전으로 개발된 기계만 조작사용할 줄 알지 과학기술발전과 관련된 보도는 거의 외면하고 있는 듯하며 상업방송의 경우 프로의 廣告적 의미만 크게 생각하지 시청자에게 미치는 과학교육적인 영향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것은 결코 우연의 소치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비과학적인 언론풍토는 이미 우리나라 言論의 體質로 화하고 만것 같다. 물론 소수의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言論이 그러하다는 것이며 제례와 나라의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 科學技術發展과 言論의 科學報道

과학기술발전의 필수조건중의 하나가 창조적 문화형성과 과학풍토 조성이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개발과 도입은 言論이 감당해낼수 없으나 科學技術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사회여건과 풍토조성은 言論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 마치 훌륭한 체육선수를 얻자면 먼저 많은 체육선수의 저변확대가 필요하듯이 훌륭한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선 과학기술인의 저변확대가 꼭 필요하다. 「나는 크면 훌륭한 기능공이 된다든가 기술자나 과학자가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 때 그 나라의 과학기술은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言論이 과학보도 활동을 통해 조성할 수 있으며 또 해야만 된다고 생각된다. 취재나 편집기술상 과학기사를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言論이 다각적으로 과학기술을 취재보도에서 크게 다루어야할 때가 왔다는 것이며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좁고 자연자원이 절대 부족한 국토에서 폐지에 살아가고 있다. 그 위에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해야 되며 공업입국하여 생산한 상품을 국제교역하여 얻어지는 수입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과학기술발전은 곧 우리 겨레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과학기술은 곧 우리들의 생사와 직결되고 있는 <32p에 계속>